

은폐된 대응으로서의 동일성*

김 동 현

【국문요약】 진리 동일론과 진리 대응론은 일상적인 직관과 조화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일론의 타당성을 현대적 대응론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론에 대해 매리언 데이빗이 제기한 두 가지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비판은 내용의 외재성과 관련되는데, 필자는 동일론은 내용의 외재성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현대적 대응론과 비교하여 더 낮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명제의 부정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비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일론은 현대적 대응론이 채택한 것과 다르지 않은 장치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대응론과 동일론 모두에서 진리의 담지는 의미론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기반을 가진다는 추가 전제와, 앞서의 두 중간 결론을 종합하여, 대응론과 동일론 둘 다에서 진리담지자는 그것의 의미를 진리의 기반으로 가진다는 귀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필자는 이 수렴점으로부터 동일론 논제는 결국 대응론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불필요한 우회로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주요어】 진리 동일론, 진리 대응론, 뜻, 사실, 외재주의

투고일: 2021. 08. 19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1. 10. 10 게재확정일: 2021. 10. 10

* 2021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1. 들어가는 말

어떤 명제 <p>가 왜 참이냐는 물음에 대한 일상적인 대답은 다 음 둘 중의 하나로 좁혀진다. 한 대답은 p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 답이고, 다른 한 대답은 p라는 것(that p)이 사실이라는 대답이다. 예를 들어, “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참이냐?”라는 물음에 대 해서,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 된다.”는 대답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두 대답이 일상적이다. 전자의 직관을 반영한 이론이 진리 대응론(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후자의 직관을 반영한 이론이 진리 동일론(the identity theory of truth)이다. 얼핏 보면 두 직관 사이의 거리는 그 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다. 두 대답 모두 진리는 사실과 어떤 식으 로든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그 점에서 두 직관은 진리의 본성을 팽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¹⁾ 둘 사이에

1) 그러나 도드는 동일론이 축소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축 소주의를 “p”와 “<p>는 참이다.”를 어느 맥락에서나 뜻의 손실 없이 상호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Dodd, 2008, pp. 120-121.) 하지만 도드의 생각은 옳지 않다. 축소주의는 진리에 대한 여러 견해의 최소 공통 개념을 형성하지만, 그 공통 개념의 공유가 축소주의에 대한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축소주의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주장, 즉 그 최소 공통 개념 이외의 추가적인 어떤 것도 진리에는 없다는 주장을 내 세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주장인, 동일론은 위장된 대응론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일론자인 도드가 진리에는 철학적으로 탐구할 흥미로운 본성은 없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드는, “p”와 “<p>는 참이다.”가 상호 대체 가능하다는 것으로부터 진리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귀결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는 참이다”에는 세계와 연결하여 해명되어야 할 정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근거이다. (Dodd, 2008, p. 121.) 이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인, 동일론도 대응론과 마찬가지로의 방식 으로 언어-세계 관계를 포괄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때문에”가 나타내는 어떤 관계를 분석에 포함하는가의 여부뿐이다. 하지만 진리담지자(truth bearer)와 진리확정자(truthmaker) 사이의 관계를 대응으로 보는 견해와 동일성으로 보는 견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양립불가능하다. 대응이란 서로 다른 두 대상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그 두 대상이 동일하다면 대응 관계 또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동일론이 주장하는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동일성 관계에는 실제로는 대응 관계가 생략되어 있으며, 동일성 관계는 현대적 형태의 대응론이 주장하는 형태의 대응 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다면, 동일론의 논제는 대응론의 주장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려는 주장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필자는 우선 동일론에 대해 데이빗이 제기한 두 가지 비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검토로부터 필자는 두 가지 중간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는 동일론이 내용의 외재성 요구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현대적인 대응론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론은 현대적 대응론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세계 관계에 불가피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간 결론으로부터 필자는 대응론과 동일론 둘 다에서 진리의 담지는 의미론적이라는 귀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는 기반을 가진다는 수용 가능한 추가 전제를 더하여, 대응론과 동일론 모두 진리담지자는 그것의 의미를 진리의 기반으로 가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 결론이 지니는 함의는, 동일론 논제는 위장된 대응론 논제이며 불필요한 우회로라는 것이다. 동일론 논제는, 적어도 현대적 대응론의 논제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만큼은 옳지만, 우리가 현대적 대응론이 아닌 동일론의 논제를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2. 동일성과 대응 (1): 뜻

동일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IT) 모든 x 에 대해서, x 가 참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IT)는 (임의의) 참인 명제는 (어떤) 사실과 동일하다고 간소하게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 논문에서도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 논제를 병용한다. 다만 간소화된 논제는 (IT)의 주장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IT)에 따르면 참인 명제와 사실의 외연은 일치하는 반면에, 간소화된 논제는 사실이면서도 참인 명제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²⁾ (IT)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짚어야 할 사항은 (IT)의 양변 x 에 대입되는 대상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T)의 예화는 아래의 (ITa)이지 (ITb)는 아니다. (ITb)의 우변은 명백히 거짓이다.

(ITa) <셋별은 행성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셋별은 행성이다>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ITa) “셋별이 행성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셋별이 행성이다.”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²⁾ David(2001), p. 684.

그렇다면 동일론의 동기는 무엇인가? 한 가지 직관적인 이유는 (IT)가 다음의 두 자명한 원리로부터 곧바로 연역되기 때문이다.

(TS) <p>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p이다.

(FS) <p>가 사실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p이다.

이 둘로부터 “<p>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p>가 사실이라는 것이다.”라는 귀결이 도출되는데, 이 귀결에 약간의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 (IT)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는 달리 말하면, (FS)의 정당성에 관한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한다. 동일론자들은 스트로슨과 프레게의 논변을 수용하여 사실이란 결국 참인 사상(thought)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아가 그들은 사실이 참인 사상과 같다는 것으로부터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구별은 없다는 것이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를 선행 가정하는 통상적인 시각에서, 진리담지자는 진리담지자에 의해서 그것의 참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진리담지자를 참이게끔 하는 진리확정자는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참인 사상과 동일하다면,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2항 구도는 무너지고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된다. 그 1항 구도에서 진리담지자가 참임을 표현하는 도식이 위의 (IT)라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진리담지자가 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동시에 ‘대응 관계’라는 불가해한 관계를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진리가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직관을 보존한다는 장점 또한 확보한다. 이것이 진리 동일론의 동기이자 유인가이다.

그러나 동일론은 여러 난제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IT)의 변항 x 에 대입되는 것은, 좌변에서 진리를 담지하므로 x 에는 진리담지자 이를테면 명제가 대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IT)의 양변에 어떤 명제를 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IT)는 그 대입된 명제의 ‘참임’과 ‘사실임’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놀라운 도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공허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1절에서 서술했듯이 대응론과 동일론 둘 다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 x 가 참이다.”와 “ x 가 사실이다.”를 많은 맥락에서 혼용 가능한 동의어로 취급한다. 만일 그러한 대체가능성이 옳다면, (IT)를 “어떤 명제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참이라는 것이다.” 혹은 “ x 가 사실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라는 것이다.”와 같이 사소하게 독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동일론이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있으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사실과 참인 명제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즉, (IT)의 x 에 대입되는 대상으로서의 명제란 그것이 참이라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³⁾ 용어 ‘명제’는 (심적 혹은 언어적인) 내용 그리고 세계 사실 사이의 경계선에 자리하는 미묘한 용어이다. 이 미묘함이 동일론이 불안정한 지점의 하나인데, 데이빗의 첫 번째 비판이 바로 이 점과

3) 강경한, 온건한, 그리고 ‘사소한’ 동일론에 대해서는 김동현(2018) 참조. 반면 대응론의 도식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이기 때문에 x 는 참이다.”라는 때문에-문장을 철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분절하여 필요충분조건 관계로 표현한 것이, “모든 x 에 대해서, x 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이다.”이다. 대응론도 동일론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일상적 직관에 토대를 둔 점은 같지만, 동일론에서와 달리 “ x 가 참이다.”와 “ x 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일상적 맥락에서 동의어로 취급되지 않는다.

연관된다.

데이빗에 따르면 동일론에서 명제는 심적(mental)이거나 외재적(external)이다. 명제가 심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면, 동일론은 사실이란 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관념론적 귀결을 낳고 말 것이다. 그런 불합리한 귀결은 명백히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제는 외재적이라는 선택지만이 남게 된다. 즉, 명제를 문장의 내용이라고 볼 때 그 내용은 외재적 내용이어야 한다.⁴⁾ 그러나 데이빗은 내용의 외재성이란 대상과 속성에 대한 지칭의 외재성을 뜻하지만, 논리 연결사나 구문론적 장치 등에서 보듯이, 명제는 대상과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문론적 장치는 명제의 구성요소이지만 사실의 구성요소는 당연히 아니다.⁵⁾

그런데 필자는 그의 비판에서, 명제의 구성요소에 관한 쟁점보다 명제의 내용이 외재적이어야 한다는 쟁점에 더 주목한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동일론은 진리확정자를 시인하지 않는, 진리확정자 없는 참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가 진리담지자의 내용이 외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와 어떻게 설득력있게 조화될 수 있는가가 동일론이 답변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내용의 외재성을 둘러싼 쟁점은, 잘 알려진 ‘물’과 ‘쌍둥이-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지시체에 관한 맥락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난다. 한 가지 예를 보자.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와 <울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는 뜻(sense)이 다르므로 서로 구

4) 내용이 외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내용 전체에 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내용 중 적어도 일부는 ‘머릿속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이다. 즉, 내용 중 적어도 일부는 (의미나 믿음 등과는 별개로) 마음 바깥의 존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David(2001), pp. 690-694.

별되는 명제이다. 한편, “신사임당”과 “율곡의 어머니”는 공외연적이므로 두 명제의 참임에 관련된 사실은 단일한 사실이다. 그런데 (IT)에 따르면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사실 S라는 것이고,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사실 S'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S와 S'은 동일한 사실이다. 따라서 동일론의 가정 하에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가 참이라는 것이라는 귀결이 도출된다. 하지만 이 귀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사임당”은 이름이고 “율곡의 어머니”는 기술구이므로 두 표현의 지시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이런 곤란한 귀결을 피하는 방안은 S와 S'이 같은 사실이라는 전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사실과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사실이 서로 다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신사임당”과 “율곡의 어머니”는 공외연적이기 때문에 S와 S'이 서로 다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⁶⁾ 또 다른 가능한 답변은, S와 S'은 서로 다른 사실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즉, 사실이 명제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명제가 뜻이라는 것과 함께,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와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의 뜻은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S와 S'은 서로 다른 사실이라는 귀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곧 서술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동일론자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 대안에서 “신사임당”과 “율곡의 어머니”의 공외연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론의 논제는 명제의 내용이

6) “p라는 것은 사실이다.”는, 가령 믿음 문장과 같은 내포적 맥락에 속하지 않는다.

외재적이라는 요구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데이빗의 첫 번째 비판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 검토 사항이다.

동일론의 입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동일론자인 도드에 따르면, 문장의 구성요소는 지시체가 아닌 뜻을 표현하며, 명제는 그 뜻의 복합체인 사상으로 정의된다. 프레게의 이론에서 뜻은 제시 방식(mode of presentation, 이하 MOP)을 포함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뜻과 MOP가 같지는 않다. 하지만 동일론의 맥락에서는, 명제 그리고 그 구성요소의 뜻을 MOP로 간주해도 무방하겠다. 동일론이 명제를 ‘지시체의 영역(the realm of reference)’이 아닌 ‘뜻의 영역(the realm of sense)’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⁷⁾ 첫째로, 명제는 발화의 내용이며 명제 태도의 대상인데, 그러한 명제를 사상으로 취급할 때 우리의 언어 행위들이 보다 잘 설명된다는 이유이다. 이는 내용 귀속 문장이나 명제 태도 문장처럼 관계사절을 사용하는 문장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점이다. 둘째로, 3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참인 명제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가정할 때, 명제를 지시체의 영역에 위치시키면 명제의 거짓을 표현하기 곤란해진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그래서 위에서 든 예의 S와 S'는 다른 사실이다.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와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는 공지시적 명사인 “신사임당”과 “율곡의 어머니”를 각각 포함하지만, 두 명사의 뜻 즉 MOP은 서로 다르다. 구성요소인 뜻이 다르므로 두 명제 즉 사상 역시 다른 명제이다. 따라서 그 구별되는 참인 사상들과 각각 동일한 사실 역시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앞서 우려한 것처럼 이 답변만으로는 내용의 외재성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동일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

7) Dodd(2008), 3장.

이 반문할 수 있다. 도대체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는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사실은 다름 아닌 참인 사상이라는 프레게의 답변보다 더 나은 답변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동일론의 답변이기도 하다. 동일론은 ‘사실’을 그들의 존재론적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들에게 존재론적으로 원초적인 것은 사상이며, 사실 개념은 사상 개념을 통해서 정의된다. 그렇다면 사실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외재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논점을 선취하는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외재성 요구를 충족했는가를 묻기에 앞서,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명제가 외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정확히 무슨 요구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일론자들은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실 개념에 호소해야만 내용의 외재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대적 대응론이다.⁸⁾ 잘 알려진 것처럼 전통적인 대응론은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을 주장한다. 이 대응 관계의 한 쪽에 자리한 ‘사실’은 개별자 또는 개체로서 취급되지만, 사실을 개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정(negative) 명제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골칫거리를 낳는다. 예컨대 <탁자 위에 고양이가 없다>라는 참인 명제에 대응하는 개별자로서의 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 시인

8) 본문에 서술한 현대적 대응론은 Glanzberg(2015)를 요약 정리한 것이지만, 이른바 ‘현대적 대응론’은 다른 여러 문헌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서술된다. 글랜즈버그도 지적하듯이, 현대적 대응론은 데이빗슨의 이론과 대단히 많이 중첩한다. 하지만 현대적 대응론을 데이빗슨의 이론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데이빗슨은 진리에 대한 일체의 환원적 정의를 반대했지만, 현대적 대응론은 그 표제에서 드러나듯이 진리를 대응으로 분석하는 이론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부담이다. 무엇보다도 전통적 대응론에서는 사실과 명제 사이의 대응이라는 관계가 대관절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다. 명제는 언어적 대상이고 사실은 비-언어적 대상인데 그런 이질적인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대응 관계란 주지하다시피 분석철학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와 같은 대륙철학자들의 눈에도 불가해해 보였다. 그래서 대응론 진영에서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 그리고 그 명제와 짝을 이루는 세계의 구조 사이의 동형성에 호소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명제의 주어-술어 구조와 자연의 물질적 배열, 혹은 윤리적 규범 질서 사이에서 동형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 현대적 대응론은 그러한 난제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대응론이 지닌 최대의 장점, 즉 아래의 (CT)로 표현되는 강력한 직관을 보존한다는 장점을 공유한다.

(CT) S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세상 생긴 모습이 ‘S’가 나타내는 대로(things are as ‘S’ says they are)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대응론은 어떻게 이를 성취하는가? 전통적 대응론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대응론은 진리를 정의하기 위해 언어-세계(word-to-world) 관계에 호소한다. 현대적 대응론에서 그 관계는 명사와 대상 사이의 지칭 관계, 그리고 속성과 술어 사이의 만족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원자 문장의 진리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형식적 장치로 채용되는 것이 타르스키의 의미론적 진리 이론이다. 그 장치는 더 복잡한 복합 문장들의 진리 조건 또한 회귀적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이 회피된다는 점이다. 복합 문장 뿐 아니라, 원자 문장조차

도 그것과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대적 대응론은 세계 안의 대상과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현대적 대응론은 의미론을 제시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의미론 안에는 진리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대응론은 진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정의한다. 진리는 원자 문장과 복합 문장의 의미론을 구성하는 원초적 개념이고, 그 의미론 전체가 진리에 대한 이론이 된다. 이처럼 현대적 대응론은 데이빗슨의 기획과 많은 부분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이제 앞선 예를 다시 돌아보자. 사실을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개별자로 간주하는 한, 신사임당이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사실 S와 율곡의 어머니가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사실 S'는 서로 다른 사실이 될 수 없다. 그 사실들은 세계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별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실을 표상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데이빗의 방침대로 명제의 내용을 외재적으로 이해하면서 두 명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와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의 참을 설명하는 올바른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사임당”은 세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술어 “...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는 바로 그 대상에 의해서 만족된다. 이에 의해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의 참이 설명된다. 그리고 “신사임당”과 “율곡의 어머니”는 공외연적이므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그래서 <율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의 참 역시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현대적 대응론의 설명은 ‘사실’이라는 개념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의 외재성을 성공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세계 안의 대상과 속성을 진리에 대한 설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뿐이다. 따라서 S와 S'이 같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 역시 해소된다. 즉, 현대적 대응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개념 자체를 추방함으로써 S와 S' 사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⁹⁾

반면에 동일론이 말하는 ‘뜻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의 사상은 내용의 외재성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한 요구는 선결문제로서 기피될 뿐이다. 하지만 워낙 프레게의 이론에서 MOP는 주관적이지도 심리적이지도 않다. 달과 그것을 관측하는 망원경에 맺힌 상의 비유에서 보이듯 프레게 자신은 MOP를 객관적 세계에 대한 공적인 표상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¹⁰⁾ 혹자는 이것을 MOP 자체가 외재적이라는(즉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는), 동일론자들에게 유리한 논거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재성과 객관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MOP가 공적인 표상 방식이라는 것과, 그것이 외부 세계의 존재에 기초한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와 <울곡의 어머니는 조선 시대 인물이다>가 서로 다른 MOP라는 것이 세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외재적 대상과 속성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9) 논의의 맥락 상 필자는 본고에서 현대적 대응론에 호의적으로 서술하지만, 현대적 대응론 또한 여러 한계를 지닌다는 점은 언급해 둔다. 첫째로, 많은 종류의 문장이 지칭과 만족, 그리고 회귀적 정의를 가지고서는 그것의 참임이 설명되지 않는다. “갑돌이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갑순은 공원에 갔다.”와 같이 “때문에”를 사용하는 문장이 그런 종류의 문장의 예이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나쁘다.”와 같은 많은 술어들이 그것의 만족 관계를 세계와의 대응이라는 구도로 분석되지 않는다. 셋째로, 수 12와 같이 추상적 대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그 의미를 지칭으로 분석하기 곤란하다. (Wrenn, 2015, pp. 85-88 참조.)

¹⁰⁾ Frege(1892), p. 155.

은, 동일론이 명제적 내용의 외재성 요구를 적어도 현대적 대응론이 해내는 정도만큼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MOP가 지시체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외재적일 수 있다는 대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점을 보다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철학자는 포더이다. 그에 따르면 MOP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¹¹⁾ 포더는 개념을 우리 두뇌 안의 어떤 구문론적 상태로 규정한다. 그러한 개념은 지시체와 MOP를 가진다. 지시체는 외재적 대상인 반면 MOP는 심적 대상이다. 포더의 논증에 따르면, 만일 MOP가 심적 대상이 아니라면, 각각의 MOP에 대해서 마음이 그 MOP를 향유하는 오직 한 가지의 방식씩만 있어야 한다. 하지만 후건이 명백히 거짓이므로, 전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MOP는 우리 두뇌 안에 있으며, 그럼으로써 인접하는 심적 원인이 될 수 있고 기능적 속성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포더의 주장이다.¹²⁾ 물론 포더는 용어 MOP를 도드와 비교해 온전히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은데다가, 논의의 주제 또한 인식론과 진리 이론이라는 차이가 있기에, 포더의 이 지적을 도드를 직접 겨냥한 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명제는 외재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선호할 만한 방안이 동일론의 설명인가는 확실히 의심스럽다. 동일론은 나름의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현대적 대응론의 설명 방식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볼 이유는 없다.

11) Fodor(1998), p. 15.

12) Fodor(1998), pp. 19-20.

3. 동일성과 대응 (2): 거짓

데이빗이 동일론에 대해 제기하는 두 번째 비판은 동일론에서 명제의 거짓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의 문제이다.¹³⁾ 동일론자들은 명제의 거짓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IF) 모든 x 에 대해서, x 가 참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라는 것이고, x 가 거짓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IF)는 명백히 불합리한 도식이다. (IF)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온갖 대상들, 가령 컵이라든가 의자, 정직함 등과 같은 것들도 무차별적으로 거짓인 명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것들은 거짓이 아니기에 앞서 애당초 진리담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동일론이 명제의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도식의 후보는 다음의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IFa) 모든 x 에 대해서, x 가 참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라는 것이고, x 가 거짓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 아닌 명제라는 것이다.

(IFb) 모든 x 에 대해서, x 가 참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인 명제라는 것이고, x 가 거짓인 명제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x 가 사실이 아닌 명제라는 것이다.

¹³⁾ David(2001), pp. 689-690. 이 쟁점에 관한 데이빗의 서술은 매우 간략하다. 본문은 데이빗의 비판을 골격으로 하여 필자의 견해를 많이 더한 것이다.

두 도식은 거짓인 명제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일치한다. 거짓인 명제를 사실이 아닌 ‘명제’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IF)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두 도식은 참인 명제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얼핏 생각하면, 동일론에 따르면 참인 명제와 사실은 동일하므로, 자연스럽게 (IFa)가 올바른 선택인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데이빗이 지적하듯이, (IFa)는 참과 거짓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의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의 부정은 참이다. 하지만 <p는 사실이다>의 부정이 <p는 사실이 아닌 명제이다>는 아니며, 후자의 부정이 전자인 것도 아니다. 이는 사실과 참인 명제가 같다는 동일론의 가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정 하에서 <p는 사실이다>의 부정은 <p는 참인 명제이다>의 부정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p는 참인 명제가 아니다>이다. 그리고 <p는 사실이 아닌 명제이다>은 같은 가정 하에서 <p는 참인 명제가 아닌 명제이다>이다. 하지만 <p는 참인 명제가 아닌 명제이다>와 <p는 참인 명제가 아니다>는 필요충분조건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동일론자들에게 남은 선택은 (IFb) 뿐이다. 데이빗은 (IFb)에 대해 “[IFb)는] 명제가 아닌 사실을 허용하는 귀결을 가진다”¹⁴⁾는 우려를 표하지만, (IFb)는 명제가 아닌 사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빗의 우려는 부적절하다. 사실의 외연이 명제의 외연에 포함되는 경우, 명제가 아닌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IFb)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Fb)는 참인 명제를 동일론의 주장과는 약간 다르게 ‘사실’이

¹⁴⁾ David(2001), p. 689. 사실이지만 명제는 아닌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귀결은 확실히 동일론에 치명적이다. 참인 명제는 사실과 동일하다는 동일론의 주장으로부터, 만약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명제라는 것이 함축된다. 따라서 사실이지만 명제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귀결은 동일론의 주장과 모순된다.

아닌 ‘사실인 명제’로 정의하지만, 필자는 이 또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일론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임’의 개념 안에 ‘명제임’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실인 명제’는 비록 잉여적인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듯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IFb)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명제의 참 거짓과 그 명제가 ‘사실인’ 명제냐 ‘사실이 아닌’ 명제냐의 여부가 서로 연동한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IFa)는 가능하지 않은 선택지임이 명백하므로, 만일 데이빗이 제안한 두 가지 선택지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동일론은 (IFb)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일론이 다음의 (IFc)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IFb)의 결정관계는 쌍방향이고 (IFc)의 결정관계는 일방향인데, 만약 쌍방향 관계가 성립하면 일방향 관계도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IFc) 명제의 참 거짓은, 그 명제가 사실인 명제인가 사실이 아닌 명제인가에 의존한다.

단적으로, 왜 우리가 (IFc)를 진리 대응론의 독해로 읽어서는 안 되는지는 전혀 분명치 않다. (IFc)에는 ‘대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IFc)를 대응론적으로 독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현대적 대응론 역시 ‘대응’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서술은 필자와 데이빗의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론자들 스스로는 거짓인 명제를 어떻게 규정할까?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드가 명제를 사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는, 명제를 지시체의 영역에 위치시킬 경우, 참인

명제는 사실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명제의 거짓을 규정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도드에 따르면, 명제를 사태로 간주하는 것은 명제를 ‘지시체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사태는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과 속성의 복합체(unity)이므로, 명제를 사태로 간주하면 명제의 거짓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은 남성이다>라는 거짓인 명제를 생각해 보자. 신사임당과 남성임을 단순히 나열한다고 해서 명제 <신사임당은 남성이다>가 산출되지는 않는다. 그 명제는 신사임당이라는 대상과 남성임이라는 속성을 구성요소로 가지는 복합체이다. 그런데 명제가 사태와 같다고 가정하자. 명제와 비슷하게 사태 역시 세계 안의 대상과 속성이 실제로 복합된 복합체이다. 물론 신사임당이라는 대상과 남성임이라는 속성의 복합체는 세계 안에 없다. 그와 같은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인 명제인 <신사임당은 남성이다>은 존재하지만, 그것과 동일성 관계에 놓인 복합체는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귀결이므로, 명제와 동일한 것은 사태가 아니라, 뜻의 복합체인 사상이라고 도드는 말한다.¹⁵⁾ 그런데 문장의 구성요소인 술어의 뜻은 개념이며, 개념은 대상에서 진리값으로의 함수이다. 그 함수는 술어가 나타내는 개념에 포섭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참의 진리값을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거짓의 진리값을 산출한다. 이로서 개념을 포함하는 사상이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는 것이 설명된다는 것이다.¹⁶⁾

도드의 설명을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론의 설명과 비교해 보

15) Dodd(2008), pp. 66-69. 바로 이 부분이 도드가 자신이 옹호하는 ‘온전한’ 동일론이 ‘강경한’ 동일론과 다르다고 말하는 지점이다. 온전한 동일론에서 사실은 실제적 존재자(real entity)들의 배열이 아니다.

16) Dodd(2008), pp. 66-70. 도드도 이 대답이 “어떻게 대상과 개념이 결합되는가”(p. 69)를 설명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남긴다는 한계는 인정한다.

자. 실은, 현대적 대응론에서는 명제의 거짓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고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현대적 대응론은 ‘사실’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인 명제와 그렇지 않은 명제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후자의 정체(正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동기도 없다. 둘째, 현대적 대응론은 의미론이다. 이름과 술어가 구문론적 규칙에 따라 나열되어 원자 명제를 구성하면, 의미론은 그 구성요소 표현 각각의 지칭과 만족 할당에 따라 원자 명제의 진리값을 할당한다.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원자 명제의 진리값 결정에 따라 회귀적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의미론은 본래적으로 진리값의 할당을 포함한다. 셋째, 현대적 대응론은 동일론과 달리 진리를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2항 관계로 분석한다. 그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은 현대적 대응론의 근간이다.

동일론과 현대적 대응론의 접근을 비교하면서, 두 견해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드러난다. 동일론은 뜻으로서의 개념이 대상에서 진리값으로의 함수라는 것을 바탕으로 명제의 거짓을 설명한다. 그와 비슷하게 대응론은 지칭된 대상이 술어를 만족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명제의 거짓을 설명한다. 반면 두 대답의 핵심적인 차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내의 비-언어적 존재자인 대상이 진리확정자의 역할을 하는가의 차이이다. 대응론과 달리, 동일론에서 명제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가짐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의 구성요소인 뜻은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지, 지시체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동일론이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거부하지 않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이를테면 대상 a 가 속성 P 를 지닌다는 사실을 진리확정자로서 설명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것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존재인 대상의 역할이 어떻게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상은 세계 내에 실재하는 존재자로서, 뜻이 아닌 지시체의 영역에 속한다. 논리적 참과 논리적 거짓을 제외하면 명제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동일론도 거부하지 않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지점이다.

4. 동일성과 대응 (3): 의미

지금까지의 필자는 데이빗이 동일론에 대해 제기한 두 가지 비판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비판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은 중간 결론은, 동일론은 내용의 외재성 요구의 충족에서 대응론보다 더 낮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은 중간 결론은, 동일론은 비-언어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요소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하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동일론과 대응론 모두 진리담지자는 **의미론적**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동일론의 근본적 존재자인 사상 즉 명제는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뜻의 복합체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상은 문장의 의미인 것이다. 이는 대응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과 대응하는 무언가가 종이 위에 쓰인 잉크 자국이나 공기의 떨림 같은 것일 리는 없다. 사실과 대응하는 것은, 문장이나 발화가 표상 또는 **의미**하는 무언가이다. 다시 말해, 현대적 대응론은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한다. 대응론의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또 다른 예가 호건의 간접적 대응론이다. 그의 간접적 대응론에 따르면, 진리는 담론 독립적인 대상들과 속성들의 확정된 총체와의 대응으로 규정된다. 그

대응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대응은 진리담지자를 구성하는 명사, 술어 등 각각에 상응하는 대상과 속성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간접적인 대응에 의해 참이 되는 예는 <베토벤 5번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된다>와 같은 명제이다.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 세계 안에 ‘베토벤 5번 교향곡’이나 ‘4악장으로 구성된다’에 상응하는 대상이나 속성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5번 교향곡을 작곡하는 베토벤의 행위, 오케스트라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악보를 분류하여 쓰는 행위 등은 분명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한 유관한 근연 요소들이 그 명제와 세계 사이를 간접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 호건이 맥락적 의미론라고 부르는 장치이다. 그리고 대응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느 경우에도, 참은 의미론적으로 올바른 주장가능성(semanticly correct assertibility)으로 정의된다.¹⁷⁾

동일론과 대응론이 의미론이라는 접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데이빗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데이빗에 따르면, 명제에 관한 의미론적 전제인 (C1)에 동일론의 논제인 (C2)를 결합하면 한 가지 종류의 대응론인 (C3)이 산출된다.¹⁸⁾

(C1) 어떤 문장이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 문장이 참인 명제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C2) 참인 명제는 사실과 동일하다.

(C3) 어떤 문장이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 문장이 사실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¹⁷⁾ Horgan(2001), pp. 77-79.

¹⁸⁾ David(2001), p. 701.

동일론과 대응론 둘 다에서 진리담지자는 의미론적 대상이라면, 두 이론 모두에서 특정한 진리담지자 p 가 참이 된다는 설명에는, 그 참인 진리담지자 p 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두 이론 모두 p 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p 의 참임에 관련된 사실은 다른 사실이 아니라 p 가 표상하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p 가 지니는 의미로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는 신사임당이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사실과 대응(혹은 동일성이 성립)함으로써 참이 된다고 설명하려면, 그 명제가 다른 수많은 존립하는 사실들, 이를테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아닌 하필 신사임당이 조선 시대 인물이라는 특정한 사실과 명제의 참을 연관시켜야 한다. 그 연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명제가 나타내는 의미가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인물이다>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란 (참일 때의) 진술 그 자체이지, 진술이 지향하는 무언가가 아니다.”¹⁹⁾라는 스트로슨의 언급에 담긴 통찰이자,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은 각 항들이 지닌 본질적 본성 안에 온전히 담겨 있는 관계이다.”²⁰⁾라는 데이빗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통찰이기도 하다.

이 귀결에, 진리의 담지는 기반을 가진다는 그럴듯한 직관을 결합해 보자. 이 직관이 말하는 것은, 진리담지자 $\langle p \rangle$ 는 논리적 참 등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스스로에 의해서 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진리 담지의 기반을 꼭 사실이나 진리확정자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langle p \rangle$ 의 참임의 기반이 ‘ p 라는 것(that p)’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즉, 진리 담지의 기반은 바로 진리담지

19) Strawson(1950), p. 453.

20) David(2001), p. 700. 필자의 강조.

자의 의미이다. <p>의 참의 기반인 p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p>의 의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p>는 <p>가 p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기반하여 참이 된다는 것은 동일론과 대응론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다. 어떤 독자는 동일론자들이 진리가 어떠한 기반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추측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추측은 틀리다. 동일론자들조차도 진리 담지의 필요조건이 의미 담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진리담지자의 의미는 뜻이고, 그 뜻은 진리담지자가 참인 경우,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론의 주장이다. 바로 그러한 뜻 혹은 사실이 동일론적 진리의 기반에 해당한다. 동일론이 부정하는 것은 기반이 아니라 진리확정자이다. 그러나 진리확정자를 부정하는 것과 기반을 부정하는 것은 같지 않다.²¹⁾

동일론에 대한 두 가지 비판과 그 대안의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론이 지닌 난점은 결국 세계-언어 관계에의 호소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었으며, 그 관계는 의미론적인 것이다. 여기에 진리는 기반으로 가진다는 전제를 추가하면, 동일론에서든 대응론에서든, 진리담지자의 참의 기반은 그것의 의미에 의해 제공된다는 귀결이 얻어진다. 그렇다면 두 이론의 중요한 접점, 즉 <p>는 <p>가 p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기반하여 참이 된다는 접점에서, <p>가 p를 의미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외재성 요구가 충족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진리담지자 <p>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21) “예를 들어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장미는 붉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미는 붉다>의 참이 장미의 붉음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생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해질 수 있다. <장미는 붉다>의 참은 장미의 붉음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는 장미의 붉음이 존재자여서, <장미는 붉다>의 참이 주어졌을 때, <장미는 붉다>와 기반 관계에 놓인다는 그런 주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Hornsby, 2008, p. 45.)

화자와 청자 그리고 세계라는 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통해 할당되어야 하며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해석 과정은 (지칭과 만족을 통해서든, 대상과 개념을 통해서든) 동일론과 대응론 가운데 어느 쪽의 견해에서 바라보더라도 세계-언어 관계를 본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동일론이 내용의 외재성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함을 살펴보았다. 물론 동일론을 외재성 요구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지칭과 만족에 기대는 현대적 대응론과 무엇이 다른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 대응론적 설명이 아닌 사실 개념에 호소하는 동일론적 설명을 택해야 하는지의 정당성은 불분명하다. 물론 동일론에서 ‘사실’은 사상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동일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존재론적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현대적 대응론 또한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 시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진리담지자의 참을 이야기하기 위해 구태여 동일론의 논제로 우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정을 표현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Fb) 그리고 그것의 귀결인 (IFc)에는 대응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론과 대응론 모두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은 세계와 언어 사이의 연결이다. 관건은 그 연결을 이루는 장치이다. 동일론과 현대적 대응론은 다르지 않은 장치에 기대고 있다. 진리담지자의 참입의 기반이 두 이론에서 모두 의미론적이라는 것이 두 장치 사이

22) “모든 명제적 사고는 … 객관적 진리의 개념의 소유를 요구하며, 이 개념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3인칭 지식 즉 타인의 마음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에 본질적이다. 하지만 3인칭 지식은 공유된 시간과 공간 안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유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Davidson, 1990, p. x vii.)

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동일론의 논제는 진리에 관한 틀린 서술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대적 대응론이 의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관계가 생략되어 있다.

5. 맺는 말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온건한 진리 동일론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주장했었다. 하나는 축소주의 논제를 승인하면서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을 포기하는 (혹은 사소한 동일성을 고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을 고수하면서 진리를 대응으로 팽창시키는 것이다.²³⁾ 본고의 논의는 온건한 동일론 앞에 놓인 길은 결국 두 번째 갈림길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 가설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진다. 필자는 진리확정자를 거부하는 동일론과의 비교를 선명히 하기 위해, 현대적 대응론이 진리확정자의 존재와 역할을 전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서술했다. 하지만 진리확정자는 본래 의미론적 개념이 아닌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진리확정자는 단지 진리담지자를 참이게끔 하는 의미론적 장치를 넘어서, 암스트롱을 따라 서술하면, 그것의 존재가 진리담지자의 참을 필연화(necessitate)하는 존재자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적 대응론과 진리확정자 사이의 관계는 본고에서 도식화한 단순한 구도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진리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반드시 진리확정자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⁴⁾

23) 김동현 (2018).

24) 린치는 이에 관한 한 가지 유비를 든다. 그에 따르면 진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드디스크가 자료

진리가 대응이라는 직관은 거부하기에는 너무 강력하지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은 가치 평가 진술의 참 거짓에서 보듯이, 진리를 대응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동일론은 진리가 사실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강력한 직관을 지키면서 ‘대응’이 주는 철학적인 불편함을 경감하려 시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는 동일론이 시도한 이 변주가 “진리는 대응이다”라는 표제로부터 아직은 그리 멀리 떠나가지는 못했음을 암시한다.²⁵⁾

저장장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정확한 구성과 작동원리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리확정자의 구성과 작동원리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Lynch, 2005, pp. 11-12.)

25) 세 분 심사위원의 상세한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동현 (2018),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에 대하여”, 『논리연구』 21집 2호, pp. 207-230.
- David, M. (2001), “Truth as Identity and Truth as Correspondence”, in M. P. Lynch (Ed.), *The Nature of Truth*, The MIT Press, pp. 683-704.
- Davidson, D. (1990),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Dodd, J. (2008), *An Identity Theory of Truth*, Palgrave Mcmillan.
- Fodor, J. A. (1998), *Concept*, Clarendon Press: Oxford.
- Frege, G. (1892), “On Sinn and Bedeutung”, in Michael Beaney (ed.), *The Frege Reader*, Blackwell, 1997.
- Glanzberg, M. (2015), “Representation and the Modern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in S. Gross, N. Tebben, M. Williams (Eds.), *Meaning Without Repres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81-102.
- Horgan, T. (2001), “Contextual Semantics and Metaphysical Realism: Truth as Indirect Correspondence”, in M. P. Lynch (Ed.), *The Nature of Truth*, The MIT Press, pp. 67-95.
- Hornsby, J. (2008), “Truth without Truthmaking Entities”, in H. Beebe and J. Dodd (eds.), *Truthmakers: The Contemporary Debate*, Clarendon Press: Oxford.
- Lynch, M. P. (2005), *True to Life*, The MIT Press.
- Strawson, P. (1950), “Truth”, in M. P. Lynch (Ed.), *The Nature of Truth*, The MIT Press, pp. 447-472.

348 김동현

Wrenn, C. (2015), *Truth*, Polity Press.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dh@ut.ac.kr

Identity as Disguised Correspondence

Donghyun Kim

While the identity theory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are in accord with our ordinary intuition, the crucial difference concerns the relation between truthmaker and truth bear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identity theory compared with the modern correspondence theory. I will start with two critics from M. David against the identity theory. The first critic is about the externality of contents. I will argue that the identity theory is no better than the correspondence theory in meeting the required externality of contents. The second critic is about expressing falsity of proposition. Considering this critic and related issues, I will assert that the identity theory inevitably accept an apparatus which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oice of the modern correspondence theory. Collecting these two outcomes, I will focus on the point that, for both the identity and correspondence theories, the bearing of truth is semantical. Adding the premise that truth has ground, I will infer the consequence that the ground of truth bearing is the meaning of the truth bearer, in either theory. From this conversant point, my conclusion is that the identity thesis is a disguised version of the correspondence thesis, and therefore unnecessary roundabout.

Key Words: Identity theory of truth,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Sense, Fact, Externalism